

예술가와 복지

오 세 곤 · 순천향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복

지(福祉)란 쉽게 행복(幸福)을 뜻한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예술가란 스스로 좋아서 그 길을 가는 이들이다. 물론 어렸을 때 타의에 의해서 선택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후 보람과 즐거움이 없다면 결국 중단하거나 의미를 잃은 명맥 잇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예술가에게 정신적 부분의 행복은 일단 그 가능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엄청난 양의 작업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예술가들이 일반 직장인과 달리 별도의 여가생활 없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 즉 예술가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정신적 행복과 육체적 행복은 함께 가야 한다. 이에 대해 “배가 부르면 작품이 안 나온다”느니 “배가 고파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느니 하는 말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아마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일을 개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지어낸 교묘한 말장난이거나, 예술가들 스스로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현실이니 마음이라도 편하자며 만들어낸 마음의 주문(呪文)이 아닐까 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훌륭한 작품을 내놓다가 유명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이후 작품이 힘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술가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신적 나태의 문제이지 결코 모든 예술가에게 적용할 철칙은 아니다. 또 경제적 부분에는 아예 눈을 감은 채 주옥 같은 작품을 지어낸 예술가들도 있다. 그러나 거부(巨富)의 자제나 되면 모를까 십중팔구 그 예술가의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가난의 대물림으로 자손들의 삶마저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모름지기 직업이란 그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예술가는 제대로 된 직업이라 보기 어렵다. 직업의 가치를 철저히 돈으로 계산하는 보험사에서 예술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면 그것은 명확하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구분주 사건’ 외에도 그늘에 묻혀버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에 단언하건대 예술가의 행복이란 작품 활동에서 오는 정신적 행복과 함께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삶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적 행복이 함께 해야 한다. 즉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며, 그렇게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예술정책을 거론함에 있어 작품에 대한 부분은 주로 지원정책으로 분류하고 복지정책은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기실 예술가에게 복지란 두 부분 모두 해당된다 하겠다.

예술의 가치, 예술가의 가치

예술가의 중요성은 예술의 가치로부터 나온다. 예술의 가치는 그것이 없을 때 우리 국가와 사회가 어떤 상태가 될지 생각하면 쉽게 드러난다. 그렇게 예술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따진 것이 이른바 몇 년 전 신조어로 나타난 ‘기초예술’이라는 단어이다. 기초(基礎)란 모든 사물(事物)의 밑바탕을 의미한다. 기초학문과 기초산업과 기초사회가 그렇듯 기초예술도 국가와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즉 기초예술은 단순히 응용예술, 실용예술, 상업예술 등의 대립개념으로서 예술의 기초가 아니라 모든 사회와 문화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존립기반이다.

기초예술은 한 사회공동체가 유지되는 문화적 토대가 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사회가 축적하고 생산한 문화예술적 토양 속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영위해간다. 그러니까 바로 일상적 삶의 질을 지정하는 것, 즉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사는지의 기준이 바로 기초예술인 것이다.

사실 기초예술은 기존의 표현인 순수예술과 내용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본질이 같다면 명칭이 어떻든 그 중요성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구태여 기초예술이라는 새 단어를 내세우게 된 것은 순수(純粹)를 현실과 거리가 먼, 그래서 아예 신경을 안 쓰거나 가장 늦게 챙겨도 되는 사치품 정도로 여기는 무지함 때문이다.

상업예술은 그 표현부터 명백히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순수예술은 이윤 창출이 아닌 예술적 가치 실현, 즉 예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성취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순수예술 대신 기

예술가의 행복이란 작품 활동에서 오는 정신적 행복과 함께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삶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적 행복이 함께 해야 한다. 즉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며, 그렇게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예술정책을 거론함에 있어 작품에 대한 부분은 주로 지원정책으로 분류하고 복지정책은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기실 예술가에게 복지란 두 부분 모두 해당된다 하겠다.

초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기초예술은 그 표현 자체에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그 표현은 예술은 순수해야 하므로 돈을 벌 필요가 없다거나, 배가 고파야 우수한 작품이 나온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단호히 거부한다. 더불어 가깝게는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즉 사회적 내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실 기초예술의 국가적 위상이 어때야 하는지는 명백하다. 이제 국가의 존립기반인 기초예술을 극빈생활조차 감내하는 몇몇 예술가들의 강한 의지나 인내력에만 의지하는 집단적 몰지각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하고 유연한 기초예술 정책이 시급한 것은 그 때문인 바, 이 정책이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과 예술가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술의 현실, 예술가의 현실

우리 기초예술의 현실은 한 마디로 절망적이다. 그것은 전통예술부터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이다. 대학 교수나 되면 모를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기본 생계조차 위태로운 참담한 지경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예술에 미친 사람과 다른 곳으로 떠날 수조차 없는 무능한 사람만 남는다고 예술인 스스로 비하들을 한다.

더욱이 매년 수만 명이 예술대학을 졸업하건만 예술을 가까이 즐기는 사람의 수는 그 전공자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도서관조차 책 사기를 꺼리는 출판 현실 앞에 문학은 철저히 허물어졌고, 제자나 주위 사람들로만 객석을 채우는 공연 예술은 이미 자생력을 잃었으며, 돈으로만 가치를 환산하는 풍토에 오염된 미술은 회복불능의 기형이 되었고, 소위 중심 장르에 주눅이 든 전통예술은 여전히 숨실 기력조차 못 찾고 있다.

예전 우리 민족이 가무를 즐겼다면 그게 사실일까? 믿을 수 없다. 물론 수많은 노래방과 행락철의 관광버스 안 풍경을 보면 그 말이 맞는 듯도 하다. 그러나 온 국민이 천편일률로 미친 듯 자막을 따라 불러대는 노래나 버스가 휘청거리게 뛰어대는 막춤에서는 예술적 품격이나 삶의 여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그 놀이의 시간마저 전투를 벌이듯 맹렬하게만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랜 세월 우리 예술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켰다. 특히 문학은 고급 공무원을 뽑는 기준이었고, 군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삶에서 시와 소리와 그림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의

고단한 삶 속에도 노래와 춤과 놀이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설령 신분도 낮아도 예술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해서 사회적인 인정과 대접을 받았으며, 그런 사회 분위기에 덧붙여 국가 차원의 예술 육성 보호 정책이 늘 확실하게 존재했다.

우리 예술의 비극은 전통예술의 파괴와 단절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중 근세 100년은 그 이전 모든 시간보다 더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이 질곡의 시간 동안 예술은 그야말로 완전 붕괴되고 말았다. 나라가 망하니 국가 차원의 예술 정책이 무너질 것은 당연하고, 백성의 삶이 더 갈 데 없이 곤궁해지니 예술을 즐길 여유가 없어질 것 또한 자명하다. 즉 공적 이건 사적이건 예술가를 지원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예술을 즐기는 토대가 사라진 것이다.

예술은 잘 짜인 예술 지원 정책과 예술가 지원 체계, 또한 상시로 예술을 즐기는 전국민적 토양 위에 꽃을 피운다. 그런데 우선 공적인 차원의 예술 지원 정책과 예술가 지원 체계가 사라지거나 마구 흔들려버린 것이다. 예술에 대한 정책이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통상 그것은 경제와 결부된다. 예술이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 되었을 때 미쳤거나 무능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나, 국가의 힘으로 유지하던 정악(正樂)은 침체하고 권번 기생들로 맥을 이은 속악(俗樂)만 남게 되는 것도 모두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적으로도 의식있는 재력가가 예술가 지원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 재력가들이 집안에 재주꾼, 즉 예술가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예술은 그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근세 격변기 서양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데서 연유한다.

이 시기를 거치며 음악과 미술, 무용은 예술가군이 서양과 전통으로 확연히 갈라져 양쪽 모두 대중과 괴리되었고,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여러 기능의 예술가가 모여야 하는 연극은 이질적인 성분이 단순 집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예술적 성취는 물론 대중의 관심마저 잃고 말았다. 반면에 문학은 연극과 같이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장르이므로 단일 작가군을 형성할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형식을 소화해 나름의 수련법을 확립할 만한 역량도 지니고 있었기에 예술적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왜곡과 경제적 난점으로 인한 총체적 붕괴 상황은 역시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예술과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예술이 없는 문화란 도저히 그 품격을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품격을 잃은 문화는 국가와 민족과 사회의 허약함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다시 예술의 존재를 위협한다. 물론 문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계속 변화한다. 과거 불교가 들

기초예술의 국가적 위상이 아예아 하는지는 명백하다. 이제 국가의 조력기반인 기초예술을 국민생활조차 견디는 몇몇 예술가들의 강한 의지와 인내에만 의지하는 집단의 몰락은 시라쳐야 한다. 국가 차원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하고 유연한 기초예술 정책이 시급한 것은 그 때문인 바, 이 정책이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과 예술가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정책이건 예술가의 삶은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예술가를 타 분야와 같은 자유 경쟁 체제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쟁이런 어떤 면에서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지렛 접초처럼 강하기만 한 충격 없는 사이의 예술가를 양원하고 정말 소중한 국가적 자산의 색은 채 나옴도 전에 질러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울 때도 그랬고 몽고가 우리 민족을 침입했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그 변화는 늘 완충장치가 있었고, 그리하여 서서히 융합하며 역시 우리의 것으로 튼튼히 자리잡았다.

그러나 근세 100년간 이루어진 서양문화의 유입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일제 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잠식되던 우리 문화는 해방 이후 전쟁을 거치며 급격히 무너졌다.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 할 때는 그나마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침범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스스로 우리 것을 모두 부숴버리고 말았다. 일제가 낯그릇을 공출할 때는 몰래 땅에 제기를 묻으며 우리 것을 지키던 민족이 해방 후 스테인리스 혁명이 일어나자 앞다투어 그것을 내다버린 것이다.

예술과 문화가 서로 연결된 채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할 때 그 예술이 문화의 뿌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술과 문화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유입과 심각한 파괴를 겪었고, 그래서 예술이 문화의 바탕으로 버터주는 건강한 상태가 아닌, 엉뚱한 곳에 뿌리를 박고 유해 여부마저 불확실한 양분을 마구 빨아들이는 기형의 문화와, 그 즐기와 잎으로부터 산소와 햇빛을 전달 받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같이 병약한 예술이 별도로 존재하는 기이하고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니,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예술의 총체적 붕괴 상황과 예술가들의 비참한 삶은 바로 그것이 현실화한 것이다.

예술가의 복지, 예술의 발전, 국가의 성장

문민정부 시절 “미국의 「쥬라기 공원」 영화 한 편이 현대 자동차 100만 대 판 것과 동일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말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소위 국내 문화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되었고, 그 기조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오해가 깔려 있었다. 미국 영화가 그만큼 성과를 내게 된 배경에 오랜 시간 예술과 예술가들에 대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즉 문화가 거대 산업으로 발전하여, 문화산업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주도하고, 한 사회의 발전뿐 아니라 성숙 정도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지, 이미 예술적 성숙 없이는 경제적 성장도 불가능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본질적 이해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예술 교육이 부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양성 교육도 거의 개인 차원에 의존하는 상태로, 또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신진과 기성의 구분 방법이나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 평가 지침조차 없는 상태로 예술을 토대로 발전해야 할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만용을 부리게 되었으니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가 정책 결정자들은 예술에 대해서 그것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또한 그것으로 국가가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즉 구색을 맞추는 정도의 생각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극빈자 구제 정도의 생각으로 예술가의 복지 정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참으로 위험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과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국고가 됐든 복권 수입이 됐든 기업 후원이 됐든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예술이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면 결코 이룰 수 없음은 당연하다. 타 분야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든지, 전년 대비 몇 % 이상 증액은 불가하다든지, 국민 정서가 아직 “예술에서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는 정도이므로 곤란하다든지 하는 핑계는 기초예술의 사망을 초래할 뿐이다. 그 사망이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일반의 경제적 효율성으로 기초예술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령 개인이고 단체고 신진을 지원함에 있어 그 신진이 기성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러나 기초예술은 외국에서 수입해올 수도 없는 국가의 근간임을 생각한다면 그 투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신진 예술가의 경우 신청만 하면 지원할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그러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하면 어찌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기우일 뿐이다.

물론 예술가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펼치려면 예술가를 인정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있어 우리는 준비된 것이 거의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문예진흥원이 30년간 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그 관련 자료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만약 있다면 그것만 정확히 분석해도 각 예술 장르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그를 토대로 현역 예술가의 인정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을 텐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간 이 땅의 예술가는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설령 옥석(玉石)을 가리기 힘들더라도, 돌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 버리는 어리석음보다는, 옥이 섞여 있을 테니 귀하게 다루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그 옥을 지켜내고 그 옥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크게 자라 국가를 지키는 초석이 된다면 그때까지의 지원은 가장 경제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건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정책이건 예술가의 삶은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예술가를 타 분야와 같은 자유 경쟁 체제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쟁이란 어떤 면

“미국의 ‘쥬라기 공원’ 영화 한 편이 현대 자동차 100만 대 판 것과 동일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말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소위 국내 문화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되었고, 그 기조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오해가 깔려 있었다. 미국 영화가 그만큼 성과를 내게 된 배경에 오랜 시간 예술과 예술가들에 대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기초예술을 살리려면 예술가나 예술계가 울지 않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애걸복걸 부탁하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시혜자의 오만한 태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젖은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한다. 공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경박한 공치사 없이 인내해야 하고, 젖을 준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나도 너무 오래 굶은 것임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한 절실함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조심스레 깨지기 쉬운 보석알 다루듯 애지중지 살려야 예술가는 비로소 숨을 쉬며 주옥 같은 예술작품을 뽑아내고 그렇게 예술이 발전해야 국가는 비로소 활력을 얻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에서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자칫 잡초처럼 강하기만한 품격 없는 사이비 예술가를 양산하고 정말 소중한 국가적 자산의 싹은 채 나오기도 전에 잘라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가 됐건, 공제제도가 됐건, 연금제도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 예술가의 생계를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침 영화인 복지재단에 이어 연극인 복지재단이 출범하였다. 국가의 정책을 기다리다 못해 민간 예술계가 스스로 자구의 방책을 시도하는 셈이다. 물론 아직 많은 사업을 벌이지는 못하지만, 특히 연극인 복지재단은 기본 기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하겠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그것도 그냥 나서서 것이 아니라 긴장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있어 특히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즉 시끄럽게 울지 않으면 젖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신봉하다가는 경우에 따라 그 아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무 굶어 이미 울 힘도 없는 아이, 또는 미쳐 우는 방법을 못 배운 아이, 그런 아이들은 일정 정도 요구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이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고통조차 못 느끼고 죽어가는 자폐상태에 빠지고 만다.

기초예술을 살리려면 예술가나 예술계가 울지 않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근간인 기초예술이 사망하면 안 되니 제발 젖을 먹어달라”고 애걸복걸 부탁하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시혜자의 오만한 태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젖은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한다. 공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경박한 공치사 없이 인내해야 하고, 젖을 준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나도 너무 오래 굶은 것임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한 절실함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조심스레 깨지기 쉬운 보석알 다루듯 애지중지 살려야 예술가는 비로소 숨을 쉬며 주옥 같은 예술작품을 뽑아내고 그렇게 예술이 발전해야 국가는 비로소 활력을 얻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우리의 국운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 아래 크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